

13. 음식 주문하기

13강에서는...

- 1) '~주세요'의 표현을 알아봅시다.
- 2) '~해주세요'의 표현을 알아봅시다.
- 3) 대표적인 태국의 음식을 알아봅시다.

<태국의 문화> '팟타이' 이름의 유래

1. '~주세요' 표현

- ขอ(커-) + 명사

- ขอ(커-) + 명사 + น้อย(너-이)

ขอ	커-	요구하다, 바라다
น้อย	너-이	~좀, 조금, 약간
เมนู	메-누-	메뉴, 메뉴판
ผัดไทย	팟타이	팟타이

พี่ครับ ขอเมนูหน่อยครับ

(피- 크랍, 커- 메-누- 너-이 크랍): 여기요, 메뉴판 좀 주세요.

จะรับอะไรดีคะ

(짜 략 아라이 디- 카):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?

ขอผัดไทยหนึ่งจานครับ

(커- 팟타이 늑 짜-나 크랍): 팟타이 한 접시 주세요.

2. '~해주세요' 표현

① ขอ(커-) + 동사: [화자가] ~을 (하게) 해주세요.

กลับ	กลับ	되돌아가(오)다
กิน	กิน	먹다
ด้วย	두-아이	...도 역시
เชิญ	츠ㅣ-ㄴ	아무쪼록, 부디...하세요

ขอกลับก่อนค่ะ

(커- กลับ 꺼-ㄴ 카): 먼저 가볼게요.

กลับดี ๆ นะครับ

(กลับ 디디- 나 크랍): 조심히 들어가세요.

หิวข้าวไหมคะ

(히우 카-우 마이 크랍): 배고프세요?

ครับ ผมขอกินด้วยครับ

(크랍, 품 커- 긴 두-아이 크랍): 네, 저도 같이 먹을게요.

เชิญค่ะ

(츠ㅣ-ㄴ 카): 어서 드세요.

[EBS 초급 태국어]

[EBS 초급 태국어]

② ช่วย(추-아이) + 동사: [청자가] ~을 해주세요.

ช่วย	추-아이	돕다
แนะนำ	내남	소개하다, 추천하다
ต้มยำกุ้ง	똌암กง	똌암กง

จะรับอะไรดีคะ

(짜 략 아라이 디- 카):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?

ช่วยแนะนำหน่อยครับ

(추-아이 내남 너-이 크랍): 추천 좀 해주세요.

ขอแนะนำต้มยำกุ้งค่ะ

(커- 내남 똌암กง 카): 똌암กง을 추천할게요.

ขอต้มยำกุ้งหนึ่งที่ครับ

(커- 똌암กง 능 티- 크랍): 똌암กง 1인분 주세요.

3. 대표적인 태국의 음식

ผัดไทย	팟тай	팟тай	 <p>https://pixabay.com/th/photos/ผัดไทย-หิว-ก๋วยเตี๋ยว-อร่อย-กุ้ง-921884/</p>
ข้าวผัด	카-우 팻	볶음밥	 <p>https://pixabay.com/th/photos/ร้านอาหาร-จีน-ข้าวผัด-1762493/</p>
ต้มยำกุ้ง	ต้มยำกุ้ง	뚝암꿩	 <p>https://pixabay.com/th/photos/ต้มยำกุ้ง-ต้มยำ-อาหารไทย-ประเทศไทย-2251015/</p>
ยำวุ้นเส้น	얌운썩	당면 무침	 <p>https://pixabay.com/th/photos/ยำวุ้นเส้น-อาหาร-เผ็ด-898496/</p>
ก๋วยเตี๋ยว	꾸-아이 띠-아우	쌀국수	 <p>https://pixabay.com/th/photos/noodle-tomyum-food-thai-ก๋วยเตี๋ยว-2402571/</p>

4. 대화: 음식 주문하기

น้ำ: เชิญค่ะ

(나-ㅁ)(츠 ㅣ-ㄴ 카): 어서 오세요.

ปอนด์: พี่ครับ ขอเมนูหน่อยครับ

(빠-ㄴ) (피- 크랍, 커- 메-누- 너-이 크랍): 여기요, 메뉴판 좀 주세요.

น้ำ: จะรับอะไรดีค่ะ

(나-ㅁ) (짜 략 아라이 다- 카):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?

ปอนด์: ช่วยแนะนำหน่อยครับ

(빠-ㄴ) (추-아이 내남 너-이 크랍): 추천 좀 해주세요.

น้ำ: ขอแนะนำต้มยำกุ้งค่ะ

(나-ㅁ) (커- 내남 톰얌กง 카): 톰얌กง을 추천할게요.

ปอนด์: ขอต้มยำกุ้งหนึ่งทีครับ

(빠-ㄴ) (커- 톰얌กง 능 티- 크랍): 톰얌กง 1인분 주세요.

[EBS 초급 태국어]

〈복습하기〉

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.

-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?
- 팟타이 한 접시 주세요.

- 먼저 가볼게요.
- 조심히 들어가세요.

- 배고프세요?
- 네, 저도 같이 먹을게요.

< '팻타이' 이름의 유래 >



<피분 송크람 전 총리>

(출처: [https://th.wikipedia.org/wiki/ /แปลก_พิบูลสงคราม](https://th.wikipedia.org/wiki/%E0%B8%9C%E0%B7%A6%E0%B8%B2%E0%B8%AB%E0%B8%A7%E0%B8%B7))

태국의 대표적인 볶음국수로 알려진 팟타이는 사실 외국에서 전래한 음식을 태국식으로 발전시킨 음식이다. 이러한 팟타이가 현재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무렵이다.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고, 쌀 값이 폭등하자, 당시 총리를 맡고 있던 피분 송크람은 태국 내 쌀 소비를 줄이고, 국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였다. 적어도 하루에 한끼는 국수를 먹도록 설득해야 하는데, '팟타이 = 외국 음식'이라는 인식 때문에 민족주의에 고취된 사람들이 팟타이를 많이 먹지 않았다.

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말린 새우, 라임, 숙주 등 태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추가하여 태국식으로 발전시킨 뒤, 이름을 ‘꾸아이띠아우 팻 타이(ก๋วยเตี๋ยวผัดไทย)’, 즉, 태국식 볶음 국수라고 명했다. 그런데 이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고, 현재와 같이 ‘팟타이’라는 이름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.

한편, 태국 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팟타이와 비슷한 음식들이 존재한다. 베트남에서는 ‘퍼 싸오(phở xào)’ 혹은 ‘뽀 퍼 싸오(bánh phở xào)’라는 이름의 볶음 국수가 있다. 그리고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브루나이에는 ‘차 궤 띠야오(Char kway teow)’라는 이름의 볶음 국수가 있다. 이들은 모두 팟타이의 친척 뺨이라고 할 수 있겠다.